

건설/건자재

건설학개론 70: 익숙해진 고금리?

지난 한 달 반 동안 대출금리가 상승했지만,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. 늘어난 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격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

Analyst 이민재

02)768-78955, minjae.lee@nhqv.com

Jr. Analyst 이은상

02)2229-6841, eunsang.lee@nhqv.com

한 달 반 동안 상승한 대출금리와 아파트 호가

지난 한 달 반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강남 3구 +1.054%, 마·용·성 +0.388% 기록하며 1년 반 만에 급격한 상승세 시현. 7월 현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호가 역시 대부분 6% 이상 상승. 반면, 5대광역시, 8개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-0.390%, -0.248%로 부진 지속

한편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인터넷은행 기준 최대 10bp 상승. 매매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수요 증가보다는 기회를 또 다시 놓치면 안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 판단. 아실 앱에 따르면 아파트 매물도 6.8만건(7월 23일 서울시 기준)으로 역대 최대 수준. 반면, 6월 아파트 거래량은 3,747건으로 증가세 둔화 중

지난주 분양시장, 청약 6건에 대한 결과 발표

지난주(7월 17~23일) 6개 현장 청약 결과 발표. 가양동 다우갤러리 휴리움(대전 동구, 224/63세대(전체공급/일반분양), 1.05:1, 1,400만원대/평), 일도이동 유피테르 6차(제주도 제주시, 63/40, 0.25:1, 1,300만원대/평), 춘천레이크시티 아이파크(강원 춘천, 874/874, 26.26:1, 1,800만원대/평), 남해 타운하우스(경남 남해군, 76/66, 0.00:1, 1,400만원대/평), 더샵 신문그리니티(경남 김해시, 1,146/1,146, 2.32:1, 1,400만원대/평),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(인천 서구, 1,370/1,370, 0.70:1, 1,800만원대/평)

춘천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제외한 모든 현장이 청약 미달. 가양동 다우갤러리 휴리움은 68B 타입 2세대,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102B타입이 25세대 청약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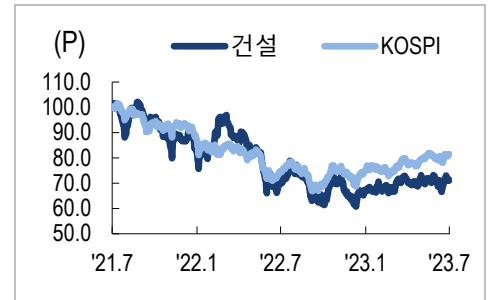
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

2023년 7월 11일~17일,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.02% 상승. 지역별로 서울(+0.07%), 수도권(+0.07%), 5대광역시(-0.04%), 8개도(-0.02%)의 변동률을 보임.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변동률을 거의 보이지 않음. 지역별로 서울(+0.07%), 수도권(+0.06%), 5대광역시(-0.08%), 8개도(-0.04%)의 변동률을 보임

Neutral (유지)

	PER(배)	PBR(배)
KOSPI	17.0	1.1
Sector	7.0	0.6

Sector Index



업종 시가총액 29,130십억원 (Market 비중 1.1%)

주: KRX업종 분류 기준

종목 투자등급(Stock Ratings) 및 투자등급 분포 고지

1. 투자등급(Ratings):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
 - Buy: 15% 초과
 - Hold: -15% ~ 15%
 - Sell: -15% 미만

2. 당사의 한국 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23년 7월 21일 기준)

- 투자의견 분포

Buy	Hold	Sell
82.2%	17.8%	0.0%

- 당사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변경되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투자의견 비율을 주간 단위로 집계하여 기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'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'의 발행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 사항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